

경기도 김동연 “우주항공분야, 경기북부권 발전에 큰 동력 될 것”

김동연 지사, 22일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주항공 분야가 경기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개발 청사진에서 우주 항공 분야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단순한 인력양성을 떠나서 고양, 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와 항공대가 경기도와 함께 맞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양시와도 의기투합해서 항공대의 발전,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달 탐사선 발사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오늘날 문샷 프로젝트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 또는 하기 힘든 일들을 혁신과 창의로 해낸다는 보통명사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정치개혁 등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문샷 프로젝트는 너무도 많이 있다”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의 발전, 제가 늘 얘기 하듯이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함께해야 할 문샷 프로젝트가 아닐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가 자체 우주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학대학 건물 내 설립한 부설 연구소다.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는 항공 우

주 및 기계공학부, 스마트 드론공학과, AI 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인공 지능학과와 4개 학과 교수진이 각각 시스템·본체 연구팀, 기계·소재 연구팀, 전기·전자 연구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연구팀을 맡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공위성 탑재 분야 최고 석학인 오현웅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를 소장으로 교수 8명, 연구원 20명이 참여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협력연구센터(GRRC)를 통해 항공대가 참여하는 영상 음향공간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력양성 31명, 특허출원 38건, 기술이전 16건, 논문투고 53편의 성과를 냈다. 또 항공대 한국 우주박물관에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와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경상북도 ‘이웃어촌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귀어.귀촌 교육, 청년어업인,해녀 육성 등 어촌 활성화 거점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은 23일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등 어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웃어촌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권순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서석영, 최덕규, 연구식 도의원과 김남일 포항부시장, 김성호 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도내 수협조합장과 어촌계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웃어촌지원센터는 경북 최대 어업 전시기지인 포항 구룡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9,917㎡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교육장, 요리·가공 실습실, 귀어인과 어업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웃어촌지원센터에서는 귀어학교와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귀어인과 귀어희망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 등 어업인단체 육성 △어촌에서 살아가기(귀어인 임시숙소) 등을 지원한다.

한편, 어업기술원에서는 귀어학교, 청년창업교육,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교육 등을 통해 매년 1,2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웃어촌지원센터에서 추진하던 기존 업무와 더불어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업무를 확대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웃어촌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귀어인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돕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어업인과 경북 해녀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단순 고기를 잡는 마을에서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활력 넘치는 어촌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권기수 경북도 어업기술원장은 “이웃어촌지원센터가 귀어인 및 청년유입으로 어촌마을의 소멸위기 극복과 고령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활기차고 행복한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양,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민과의 대화...“망덕테크 정비·백운제 돌레길 조성 등 지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광양시를 철강도시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 첨단 소재산업으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광양시청에서 열린 ‘광양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양시 도민과의 대화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박경미·임형석 전남도의원, 서영배 광양시의회의장, 정재봉 광양경찰서장, 이계준 광양교육장, 서승호 광양소방서장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도의 관심에 힘입어 광양은 지난해 역대 최대 투자유치와 국·도비 확보를 비롯 동호안 규제 해소,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등 많은 결실을 봤다”며 “미래산업인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 키우고 있다. 광양 발전이 전남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전남도정 수행에 광양

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양시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진월면 망덕테크 정비사업(10억원) ▲백운제 돌레길 조성사업(50억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섬진강 망덕포구는 매년 관광객 3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지만 현재 강변 산책로 일부가 부식과 개질이 심해 부분 폐쇄한 상황이다”며 “긴급 보수공사가 추진되도록 전남도가 20억 원 중 1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양시는 백운제 돌레길 조성 사업비로 50억 원의 재정지원을 부탁했다. 정 시장은 “백운저수지 주변에 펫 힐링 리조트, 국내 최대 계단식 카페촌, 글램핑장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됐다”며 “수변힐링 관광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돌레길 조성공사에 사업비 5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광양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전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온·오프라인에 참석한 도민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온라인 참석자들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을을 추가 지정토록 하겠다”며 “경로당 운영비는 오랫동안 동결된 만큼 증액 필요성을 느낀다. 관련 실국과 면밀히 검토해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 계정사업 개선 ▲황금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 대책 마련 ▲지역상생협의체 권한 확대 ▲광양포스코 지역 기여 방안 ▲지방산단의 국가산단 승격 ▲지역대학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민 의견을 종합해 듣고 지역사회와 호응하는 부분을 만들겠다”며 “답변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실무진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정치용 × 신지아 × 경상북도립교향악단



경상북도도립교향악단 X 경주문화재단 특별기획공연
제 175 회 정기연주회

CHUNG CHIYONG & SHIN ZIA

Gyeongbuk Philharmonic Orchestra

2023.5.25.Thur 19:30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

주최 경상북도 | 주관 경상북도도립교향악단 | 후원 경주문화재단 |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 | 문의 1588-4925

티켓 R석 3천, S석 2천 시야제한석 1천(경북도민할인 50%) 초등학생이상 관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소방행정 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 개최

도 소방재난본부 담당관과 연천119안전센터 증축, 의용소방대 전용 교육장 설치 등 논의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2일, 연천상당읍에서 부족한 연천지역 소방행정 시설 및 공간 확충을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예산관리팀), 회계장비담당관(소방자산관리팀)등과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보되면 의용소방대원 역량 배양 및 자긍심 고취가 기대된다. 윤의원은 "열악한 소방행정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임무수행

연천119안전센터는 공간이 협소한 연천119안전센터 40평 증축(소요예산 약 5억) 및 의용소방대 전용 교육장 등 공간 설치(소요예산 약 15억)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공간이 협소한 연천119안전센터 40평 증축(소요예산 약 5억) 및 의용소방대 전용 교육장 등 공간 설치(소요예산 약 15억)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공간이 협소한 연천119안전센터 40평 증축(소요예산 약 5억) 및 의용소방대 전용 교육장 등 공간 설치(소요예산 약 15억)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저축보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자 실질 지원금 높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있어 저축자산 인정액이 상향조정된 데 환영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고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저축자산 인정액 기준 185만원이 낮다"며, "저축을 잘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의 지원금액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저축자산 인정액 기준의 상향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재단은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의 배분과 관련한 안전을 심의하는 배분심의위를 통해 임차보증금 자산인정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지원 금액 선정 시, 기보유 보증금 및 예적금 자산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서 제외해 대상자는 그만큼 차감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주거위기가구에 전월세 자금 일부 주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총 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세대주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주거 위기상황이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소라 의원은 "우선 소액 예적금을 보유했음에도 신청액 대비 지원액이 적어졌던 주거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며, 자산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사를 밝히는 한편, "2022년 지원사업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해당 주거위기가구가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주거비 지원금액을 높이고, 가구 인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경수기자

충남도의회,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수립 나선다



충남도의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은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 모임에서 방문한 섬 지역 폐교와 분교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폐교 재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폐교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이적지(이전 추진 중인 학교의 현재 부지)와 폐교 활용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은(보령2-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폐교가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서의 역할을 되찾고, 충남지역의 차별화된 폐교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발족한 이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를, 함덕여자중학교 양형우 주무관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당진시의원, 대학교수 등 12명의 회원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尹 대통령에 의정비 제도 개선방안 건의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지난 12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해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의 건의안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인 강필구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의원들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경직이 금지되어 경제활동이 사실상 막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촉구하고 지방의원이 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의정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장은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에 열린 제249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와 17일 전남 장흥군에서 열린 제281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의정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피력하며 '지방자치의 자립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대선(112)	문화부:대선(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113)	부동산부:대선(117)
	경제부:대선(114)	오락취미부:대선(118)
	스포츠부:대선(115)	지방부:대선(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k-oceans.co.kr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사)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
수량: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하세요~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어귀촌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수상레저 특별관 (요트, 보트, 제트스키), 지자체 관광지도 등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 문의 | 053.601-5256

주최 | 경상북도 | 경주시 | 주관 | mire | 환동해산업연구원 | exco | 후원 | 해양수산부

벤처투자 촉한기 출구전략 만든다...서울시,글로벌 큰손 투자자와자금경색해법 모색

서울투자청-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자간 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공동 개최

서울시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출자기관(LP)을 초청하여 국내 벤처캐피탈(VC)과 국내 최초 벤처투자 글로벌 투자자(LP, GP) 네트워킹 행사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Global Venture Investment Summit in Seoul, 이하 GVIS Seoul)'을 5월 25일~26일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 호텔과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Invest Seoul)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글로벌 투자유치 행사이다. 국내외 금융 관계자의 교류를 통해 서울에 대한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무엇보다 서울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로 연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유럽투자자금(EIF)과 말레이시아 투자사(Permodalan Nasional Berhad, PNB),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손자회사인 아젤리아

(Azalea), 태국증권거래소,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 애덤스 스트리트 파트너스(Adams Street Partners), 액시움 아시아 프라이빗 캐피탈(Axiom Asia Private Capital) 등 세계 주요국의 글로벌 출자기관(LP)이 참석한다. 그 외에도 글로벌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벤처투자 운용사(GP) 100개 기업이 참여한다.

출자기관(LP, Limited Partners)은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운용사(GP, General Partners)는 출자기관의 출자금으로 투자를 실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시는 국내외 대형 출자기관(LP)의 국내 운용사(GP)와의 교류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적절한 운용사를 매칭하는 등의 맞춤 지원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글로벌 자본 유치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조주

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처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하고, 벤처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투자자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어 양일에 걸쳐 벤처투자현황의 세계적 동향, 국내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협업을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출자기관(LP) 기초연설 ▲벤처투자 세미나 ▲글로벌 투자자 패널토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양일에 걸쳐 벤처투자현황의 세계적 동향, 국내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협업을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출자기관(LP) 기초연설 ▲벤처투자 세미나 ▲글로벌 투자자 패널토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에 해외 출자자(LP)의 한국시장 투자 계획과 선호 그리고 국내 운용사(GP)의 해외진출 전략 지역과 펀드 운용계획을 상호 분석하여 1:1 매칭한다.

또한 행사에 참가하는 해외 운용사(GP) 중 한국 스타트업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사를 선별했고,

전문 플랫폼 프레퀀(Preqin)에서 세계 벤처투자자(VC) 시장의 동향과 국내 벤처투자자(VC)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외 출자자(LP)와 운용사(GP)로 구성된 패널토론에서는 글로벌 출자자(LP)의 운용사(GP) 평가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성공적인 글로벌 협업을 위한 길을 탐색한다.

또한, 서울 벤처캐피탈 생태계의 직·간접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 출자기관(LP)-국내 운용사(GP)의 1:1 투자설명회 ▲해외 운용사(GP)-서울 유망기업 투자상담 등도 이루어진다.

사전에 해외 출자자(LP)의 한국시장 투자 계획과 선호 그리고 국내 운용사(GP)의 해외진출 전략 지역과 펀드 운용계획을 상호 분석하여 1:1 매칭한다.

또한 행사에 참가하는 해외 운용사(GP) 중 한국 스타트업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사를 선별했고,



이들에게 서울 유망기업 30여개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VIS Seoul은 혁신적인 투자처를 찾는 글로벌 출자자들에게 서울 벤처캐피탈 생태계의 성과와 매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올해 처음 개최하는 GVIS Seoul과 같은 투자자 전문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글로벌 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 기업으로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수/기자

영등포구, 친환경 방역으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 잡는다

본격적 여름 앞서 모기 방역 본격 시동...해충유인살충기 6대 추가 설치로 총 279대 가동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모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고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모기 박멸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때 이른 초여름 날씨로 모기 활동이 빨라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수는 4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이에 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모기 발생이 잦은 공원을 대상으로 해충유인살충기 6대를 추가 설치했다. 설치 대상은 공원 면적이 넓고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 역사공원, 상아현대 어린이공원, 대림3주택 어린이 공원, 신길5구역 어린이공원이다. 해충유인살충기는 화학 약품 없이 빛 파장을 이용해 모기를 유인한 뒤, 내부 팬으로 살충하는 친환경 장치로 공원과 유수지, 하천변에 총 279대가 가동 중이다.

아울러 구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친환경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하수구, 정화조, 물웅덩이 등 모기 유충이 자라



기 쉬운 곳에는 유충 방지제를 살포해 모기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은 주민 건강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살충제 등급 분류 중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안전한 U등급의 약품이다.

또한 병원, 어린이집 등 1,500여 개의 소독의무대상시설과 3,300여 개의 소독비의무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모기 유충 조사를 실시하고 소독과 퇴치 방제활동을 펼친다.

이 외에도 ▲모기채집유인등과 디지털모기충정기로 모기 종류와

개체수 측정 ▲모기 서식처가 될 수 있는 페타이어, 화분 등의 고인물 제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빈틈 없는 모기 방역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은실 감염병관리과장은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공원, 주택가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해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환경과 주민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방역으로 모기와 감염병이 없는 안전 보건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삶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앤드루 조지'의 '있는 것은 아름답다' 사진전 연장 개최!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사장 조세현)와 도서출판 일요일(주) 엠디인사이트)이 주최하는 '있는 것은 아름답다' 사진전이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내달 30일까지 연장 전시된다.

'있는 것은 아름답다(Right, Before I Die)'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사연을 담은 '앤드루 조지'의 사진전이다. '앤드루 조지'는 로스 엔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로, 20여 차례의 국제 전시회에 참여한 경력과 다채로운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존 작품인 '있는 것은 아름답다'와 더불어 '앤드루 조지'의 최근 작품인 'Everything Reminds Me of Everything'을 함께 선보인다.

'Everything Reminds Me of Everything'은 '있는 것은 아름답다'에 대한 답변이자 작가 본인의 내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과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얻

은 사진을 기반으로 한다.

사진작가 '앤드루 조지'는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관객들은 죽음을 비롯한 자신에게 당연한 문제를 깊이 생각할 것"이라며 "사랑, 기쁨, 신앙, 투쟁, 끈기, 희망 그리고 용기를 가져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있는 것은 아름답다' 사진전은 관람객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꼭 봐야 할 전시다.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스무 명의 이야기를 통해 관점과 지혜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전한다.

"죽음이 삶의 한쪽엔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무심했던 것들에 감사하며 삶의 가치를 재정의하게 해 준다."라는 '알랜드 보통'의 전시 소개 글처럼 이번 전시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있는 것은 아름답다' 사진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충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관람 가능하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전 구청장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초' 만들 것"

서울 서초구가 서초우체국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서울 서초구는 23일 서초우체국과 '서리풀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서리풀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서초SOS 지원 등의 복지정보를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과 생활실태 정보를 조사, 구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 기정보 통보대상자 중 전화번호 미등록, 전화 미수신, 가정방문을 2회 이상 했으나 부재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00여 명에게 복지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초우체국 집배원은 복지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대상 가구의 실거주 여부와 주거환경 관찰, 생활실태에 대한 면담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구에 결과를 전달한다. 이후 동주민센터에서는 우체국



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검토 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유선 상담 등 2차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긴급복지, 공공서비스 신청,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업무협약서 교환과 함께 서초우체국 집배원 199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서초누비단'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동희/기자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서리풀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에 힘을 보태주시는 서초우체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초'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5월 31일까지 52개 사업 총 267명 모집

금천구는 5월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267명을 모집한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모집사업은 무료급식소 급식 지원, 도서관 정화사업, 공원 정비, 안양천 둔치 정비 사업 등 52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 시(2023.7.1.)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고,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합산 재산이 4억6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세부 기준 및 근무조건, 신청 서식 등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등은 참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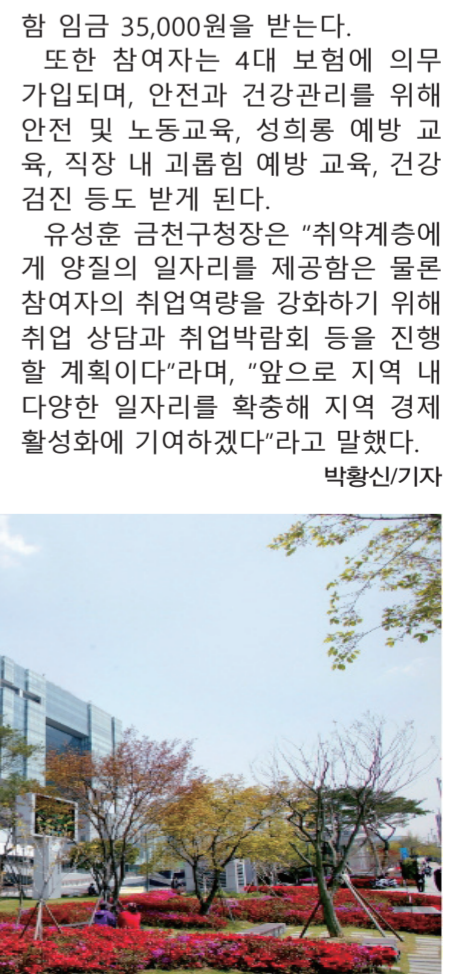
금천구는 신청자의 재산 상황, 부양가족 수,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기준과 배제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6월 28일에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지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금천구청, 복지관,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1일 임금은 식비 포함 55,000원이다. 단,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식비 포함 임금 35,000원을 받는다.

또한 참여자는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 및 노동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건강검진 등도 받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상담과 취업박람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를 확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용인시새마을회, 다문화가족 대상 옷 나눔 행사 열어

이상일 용인시특례시장 “지구 환경 위한 자원순환 중요”

용인특례시는 용인시새마을회가 23일 용인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지구촌 옷 나눔 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옷가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새마을부녀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기부받은 옷 900벌과 지난 16일 읍면동 주민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헌 옷 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은 25t의 헌 옷 중에서 깨끗한 것을 선별한 후 세탁과 수선을 거쳐 물품을 내놓았다.

장터 개장과 함께 행사장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 준비한

옷 1500여 벌의 주인이 됐다.

용인시새마을회는 '생명살림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헌 옷 모으기 행사, 옷 나눔 장터 운영 등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길자 용인시새마을부녀회장은 "주민들이 열심히 모은 옷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 문화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속적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입던 옷을 세탁하고 기부한 옷까지 나누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에 따뜻한 마음



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중요한데 실천수범해서 자원 재활용을 통

해 지구를 살리는 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성시, 동남아 新시장 진출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안성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는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동남아 시장 수출 진흥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태국 방콕에 안성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사전 시장성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안성시 수출업체 5개소가 선정됐으며, 건강음료, 화장품, 비료, 의류기기 등 다양한 품목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파견된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시장을 방문하여 각 지역 상담장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1:1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61건의 2,434만불의 상담실적을 내었다.

특히, ㈜피코스텍은 나노 기술을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갖춘 화장

품 제조 업체로 태국 현지 바이어와 5천만원의 실계약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매년 시장개척단 1:1 바이어 상담 알선, 상담 통역비, 카탈로그 제작 및 샘플배송비 지원 등 수출상담회 운영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동남아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수출기업의 新시장 판로 확대 및 지속적인 수출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출지원에 나설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수출 시장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풍농물류 주민대책위 간담회



“첫 단추 잘 꿰어야... 당분간 오산에 대형 물류창고 없다”

호고 후문 통학로 재포장 공사 등의 민원사항을 조치 완료했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 (AM. 7:30~9:00, PM. 3:30~5:30) 남측 통학로 인근 물류창고 출입구 폐쇄 ▲등하교 시간 화물차량 운영 제한 및 신호수 배치 ▲등교시간 2개소 신호수 배치 등도 협의 완료했다.

주민대책위에서 요청한 ▲물류창고 부출입구 횡단보도 X자 설치 ▲동부대로→오산IC 우회전 차로 신호설치에 관련해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X자 설치의 사업자가 공사 예정이며, 동부대로 우회전 차로 신호 설치는 오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어려워졌지만, 대신에 시장님께서 진입로 방향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자고 하셔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물류센터) 공사 당시보다 더 안전해졌다. 협의한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신호수들이 배치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역말천 정비공사 구역의 난간높이 검토 ▲해당 구간내

횡단보도에 노인일자리제도를 활용한 도우미 배치 등을 추가 요청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이상복 의원 발의)에는 부지면적 4천5백㎡ 이상인 창고시설은 학교시설 및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주택 10호 이상 밀집지역에서 100m 이상 이격하는 내용이 담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첫 단추를 꿰때부터 사후 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 전임 시정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문제였다. 오산은 화성의 16분의 1정도로 땅이 협소한 데 물류창고가 너무 많다"며 향후 일정 기간 물류창고 신청은 반려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기부채납 등을 제시하겠다"며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청하는 자세로 임해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양시현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성호중학교에서 열린 풍농물류센터 관련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 통학안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권재 시장과 시청 주무부서 관계자, 안민석 국회의원,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을 비롯해 성호 중·고등학교장, 성호중·고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물류센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오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총 8회에 걸쳐 물류센터 관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갖고 성호중(7개), 성호고(1개)에서 제시한 총 8개 건의안을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오산시는 ▲동부대로변 횡단보도 이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물류센터 남측 2m 보도 공사 완료 ▲학생통학 셔틀버스 운영 위한 증차계획 수립 ▲성

인천시, 산업단지'산업공간 가치 재창조'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는 노후된 산업단지를 기업이 일하기 좋고, 시민이 찾고 싶은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 산업화와 지역 총생산과 고용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인천형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부평·주안산단이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가속화 생태계 구축, 사업화·사업재편 역량 강화, 고용 친화 공간 구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27개 세부 사업에 3,250억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부처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남동산단이 본 공모에 선정돼 2022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조기업 친환경·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한 '스마트 융합제조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도 확



대 추진된다.

지난 2019년 남동산단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부평·주안 산단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앞으로 디지털 전환, 저탄소, 스마트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 사업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남동산단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소한 '스마트화관'에서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스마트 제조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개소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부터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기술역량 향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교통정보, 안전 모니터링, 화재감시·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형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과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인천 전체 산업단지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남동산업단지는 입지 경쟁력, 특화된 산업문화, 시민·근로자를 중심으로 휴식·쇼핑·체험을 위한 공간(점)을 설정하고, 각각의 대상지를 길(선)로 연결해 최종에는 중심축(면)으로 확대하는 점·선·면 개념을

김종남기자

광명시 일직동 주민자치회, 탄소중립 실천 결의다져

광명시 일직동 주민자치회는 18일 5월 정례회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펼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일직동 주민자치회 위원 30명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폐배스를 활용하여 '태어난 김에 탄소중립·NO 플라스틱' 등 결의문과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탄소중립 피켓을 만들고 실천을 다짐했다.

평재인 일직동 주민자치회장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만

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일직동장은 "탄소중립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직동에 탄소중립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직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유관 단체 및 기관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대구광역시, 글로벌 물류허브 창이공항과 협력 논의 착착

아시아 대표 허브공항인 창이공항의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운항제한시간(커뷰타임) 없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여 촘촘한 항공노선망을 구성하고 있고 노선 간 연계성도 높아 효율적인 항공기 운영을 통해 항공여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공항이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물류업체인 디에이치엘(DHL), 페덱스(FedEx) 등이 동남아시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연결로 2022년 기준 연간 185만

톤 규모의 화물을 처리하는 등 글로벌 물류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도 강화하고 있다.

여객터미널은 출입국 시설 및 면세점 등 기본시설뿐만 아니라 컨벤션, 호텔, 수영장, 스파 등 복합시설까지 갖춰져 이용객의 편의를 더하고 있으며, 환승 시 출입국 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입국심사 없이 보안검사만 받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보석이라 불리는 문화·

쇼핑공간이자 인공폭포 레인 보어텍스(Rain Vortex)와 5층 규모의 실내정원을 보유한 복합문화공간 주얼창이는 항공 편의시설을 넘어 공항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공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얼창이의 꾸준한 이용객과 수익창출 덕분에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급감했음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창이공항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도심의 동부지역에 물류와 항공 관련 산업단지를 비롯해 컨벤션센터인 싱가포르 엑스포, 비즈니스 파크가 인접해 있어 공항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창이공항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운영사례를 적극 반영해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향후 성공적인 운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3년 찾아가는 성교육체험버스 교육 실시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오귀영)에서는 5월 22일(월) 찾아가는 성교육체험버스교육을 상주시 화동중학교와 이안초등학교 전교생 60여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성장에 따른 몸과 마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명탄생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임신·출산에 관한 생명의 존엄성 체험, 성폭력 예방교육, 사춘기 몸의 변화 알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학생들은 교실에서 벗어나 45인승 대형버스를 이동식 성교육 전시 체험 버스에서 다양한 성교육 자료를 직접 보고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었으며, 산모의 태동을 느껴보고 신생아 인형을 안아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에 대한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오귀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동형 체험버스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 및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올바른 성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였다.

김동현/기자



달서구, 청년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We Together' 결혼장려 홍보

대구 달서구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긍정적 결혼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곡장미공원 일원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We Together'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We Together' 결혼장려 홍보 캠페인은 달서구 결혼친화서포터즈단, 공무원,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민·관·학 합동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오후 2시 이곡장미공원 출입구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앞장 서 "청년, 결혼을 응원합니다." "결혼은 축복이다." 등 피켓을 활용한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3 장미꽃 필 무렵 행사'와 연계해 메인무대에서 장미꽃, 사랑

의 반지풍선, 하트풍선 등을 활용해 계명문화대학교 공연음악학부 학생과 함께 사랑노래에 맞춰 울동을 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청년과 함께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신혼함과 함께 결혼이 주는 행복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전국 유일 결혼특구 달서의 열정적인 결혼장려 홍보활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행복한 결혼 문화의 꽃을 피워내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결혼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한민국 결혼1번지, 달서구를 힘차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김천 버스, 교통 불편 해소로 시민의 발이 된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경계' 전환 및 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고 10개 노선 운행 시간을 변경하여 22일부터 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편은 100여 가구가 입주한 도공촌에 '순환 4-1' 순환형 1개 노선과 울곡동 주민들의 스포스타운, 문화예술회관 이용 증대에 따른 '김천20', 'KT20' 왕복형 2개 노선 등 총 3개 노선 신설 및 10개 노선 운행 시간 변경을 통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도공촌에서 탑승한 한 시민은 "자

가용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해 기차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시장에서 장을 본다든지 하면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제는 버스가 들어와 아들 도움 없이 혼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야말로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교통이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객들의 교통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문경시, 문경새재 과거길 체험행사 상설 운영

새재주막 전통체험(5월 ~ 11월) 매 주말, 60회 실시

문경시는 5월부터 11월, 매주 주말 문경새재 2관문을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문경새재 주막에서 '문경새재 과거길 체험행사'를 60회 상설 운영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문경새재 과거급제길을 오르며 주막에서 쉬었던 선비들의 삶을 모티브로 주막에서 다양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에 선정된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새재 주막' 입구에 마련된 엽전 구입처에서 엽전을 구입한 당·1,000원(왕)하면 원하는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행사는 인절미를 맛보고 즐기는 떡메치기 체험,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 청을 시음할 수 있는 오미자 음료 체험, 커피 시음 체험, 문경 전통주 체험, 선비 옷과 짚신을 신어 과거를 온전히 재현해 보는 선비 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또한 활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자치기 등 전통 놀이는 무료로 준비돼 있어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처음으로 운영한 지난 주말에는 1,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문경새재 주막을 방문하여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문경 전통주 체험 코너에서는 행사 스태프 옛날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로 분장하여 손님들을 맞이해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한 방문객은 "눈과 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떡



메치기와 선비 옷 체험 등을 통해 옛 추억을 느끼고 생각지 못한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새재를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분들께 쉽

이자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문경새재 주막을 문경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영천이 앞장선다

영천시는 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R&D 분야)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천시 1년 이상 소재 및 종사자 수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아이디어 단계의 신제품개발 또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Scale-Up R&D의 경우 6천만 원, 보유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상용화 목적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 R&D의 경우 4천만 원까지이다.

접수기간은 6월 2일까지이며, 신

청은 이메일로 하면 되고 문의는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기준에 시행 중인 2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전환육성 지원사업에 2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이 더해짐으로써 관내 기업의 생산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영천시는 향후 더욱 다양한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률 상승 견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혁신기술개발사업에 참가해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들의 세부 성과로는 2023년도 총 매출액 639억 및 고용 172명으로 전

년 대비 198억의 신규 매출 창출, 46명의 신규 고용 창출, 시험인증 2건, 특허출원 등록 2건 등이 있다.

한반식/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제2회 하늘채 우리장터 개최

-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입주민 통합 및 소통강화
- 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
- 이재혁 사장, "이런 행사를 지속 실시,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만들겠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일,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잔디광장에서 제2회 하늘채 우리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자원의 나눔과 이웃 간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이웃 간 유대관계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특히,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희망한다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품질을 위한 트로트공연, 청년층을 위한 향수 만들기, 어린

이고객을 우선한 LED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고 전 연령층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페이스페인팅,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입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만족도를 높였다.

이재혁 사장은 "도민의 공기업을으로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입국



영양군은 지난 4월 6일 MOU 1차로 90명 입국한 것에 이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월 23일 현재 11농가 48명이 입국했으며, 6월 초까지 20농가 69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와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및 친척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입국 후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군청으로 방문하여 기본적인 안내사항 및 안전교육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농가로 배치되며 추후 외국인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5개월 동안 농가에 배치되어 영양군의 우수한 농·작업을 배우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번기 일손부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양군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외국

인등록비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들과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으로 입국하는 117명과 함께 MOU체결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550여명이 입국하는 등 올해 총 220여 농가 650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으로, MOU체결 방식으로 2차로 입국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6, 7월 까지 410여명, 8월에서 10월까지 총 650여명이 영농에 종사하며 인력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서울에서 만나는 '미조항 멸치축제 기획전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5월 23일부터 3주간 전시



남해군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 갤러리에서 '서울에서 만나는 미조항 멸치축제' 기획 전시를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과 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부득이하게 개최가 무산된 미조항 멸치축제를 대안 아쉬움을 달래고 남해의 농수산물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내년도 제18회 미조항 멸치축제를 미리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멸치축제의 영상과 사진을 전시했으며, 관람객 누구나 직접 미조항 멸치축제장에 온 듯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갈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남해의 수산식품 요리 모형과 다양한 농수산 가공품을 소개하

고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로도 이어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나에게 쓰는 5월의 메리치 크리스마스 카드'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번 전시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카드에 내용을 직접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 미조항 멸치축제 직전에 본인에게 쓴 축제 초청장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카드를 가지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는 할인 또는 기념품 제공 등의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 미조항은 공간을 넘어 서울에서 내년도 미조항 멸치축제를 미리 만나시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한해 쉬어가는 미조항 멸치축제를 제대로 리뉴얼하여 더욱 알차고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부산 권역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부산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부산시는 어제(22일) 오후 4시, 부산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해운대구 소재)에서 '부산 권역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데이터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부산시가 2022년에 함께 설립했으며,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 가명처리 해결책, 분석공간 등을 지원하는 등 남권의 가명정보 활용 거점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 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역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부산시는 데이터 관련 신규사업 발굴,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데이터 도전(챌린지) 사업, 데이터 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과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데이터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

원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개인정보 위는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신뢰 확보 방안'을 주제로 마이데이터 도입,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향,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역 데이터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사례 및 지역 데이터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센터가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활용 교육 및 분쟁 상담 등 연계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넘어 '개인정보 활용지원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위 또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독과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스타트업에 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지역 데이터 기업 및 협·단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



명처리 제공 ▲의료데이터 적극 개방 ▲서울·수도권 중심의 데이터 정책의 지역 확산 등 정부와 부산시에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시 송복철 경제특보는 "현대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활용하는가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산업발전과 시민의

송종진기자

구미시,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공동 대응에 힘쓰다

구미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회의 실시

구미시는 23일 시청에서 감염병 공동대응 및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구미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호섭 부시장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관, 민간단체,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시의 코로나19 대응과 성과, 감염병 국제동향 및 정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 앞으로 우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란 주제로 이관(동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장의 특강을 실시했고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시의 대책과 유관기관 단체의 역할 및 협력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구미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호섭 부시장(위원장)은 "지난 3년간 구미시의 코로나19 대응은 기관단체의 헌신적인 협조 덕분이었다"며, "시는 감염병 대응 지역사회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문경시, 한국씨엔오테크(주)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영순 사근공장 증설에 따른 25억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경시는 5월 22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씨엔오테크(주)의 사근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시의회 의장, 고상범 의원, 남기호 의원, 오세홍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씨엔오테크(주)는 연습용 수류탄 및 훈련용탄 생산 기업으로 금번 공장 증설에 25억원을 투자하고 1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씨엔오테크(주) 사근 공장 증설은 부자재 및 소모품 등을 관내 업체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제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업하기 좋은 문경시의 기업지원 정책으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를 활성화해 신성장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동구, 우수식품 특별 판매전 행사 개최

대구 동구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동안 이마트 반야월점 1층 행사장에서 동구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가 참여하는 '2023년 동구 우수식품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로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마케팅 전략 및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우수식품이 참여한다.

대형 유통마트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판매 기회 제공 및 판로 개척과 마케팅 한계 극복을 위한 사업이다.

공모 접수를 통해 선정된 10개 업체는 ▲(주)사람과연결플러스자연(연근과자) ▲보경광(발효고추장) ▲(주)용화식품(불고기짜글이) ▲화담(청마실생강청) ▲한티재(겉절이김치) ▲(주)그린로더스(원두커피) ▲강국희김부각(김부각) ▲옛밭사랑(수제현미누룽지) ▲(주)백두에프앤에스(피자빵) ▲우리농산(참기름) 등이다.

위 업체 생산하는 총 30여개의 다양한 품목을 만날 수 있으며, 현장 조리 시연 및 무료 시식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참여업체들이 우수식품 판매전 매출의 10%를 기부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며, 이마트에서도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사랑나눔 실천에도 함께 동참한다.

이와 함께 구청은 판매전 참여업체를 사전에 방문해 제조 과정 및 대표자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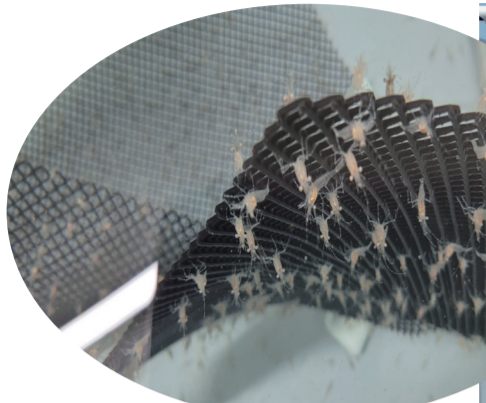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들이 궁금한 업소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행사기간 영상을 제작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행사 이후에도 동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와 구청내 대형 브라운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는 다방면으로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 중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들은 지역의 우수식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도 식품업체의 육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독도의 터줏대감, 도화새우 30만마리 방류

고부가 품종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 조기실현 및 어업소득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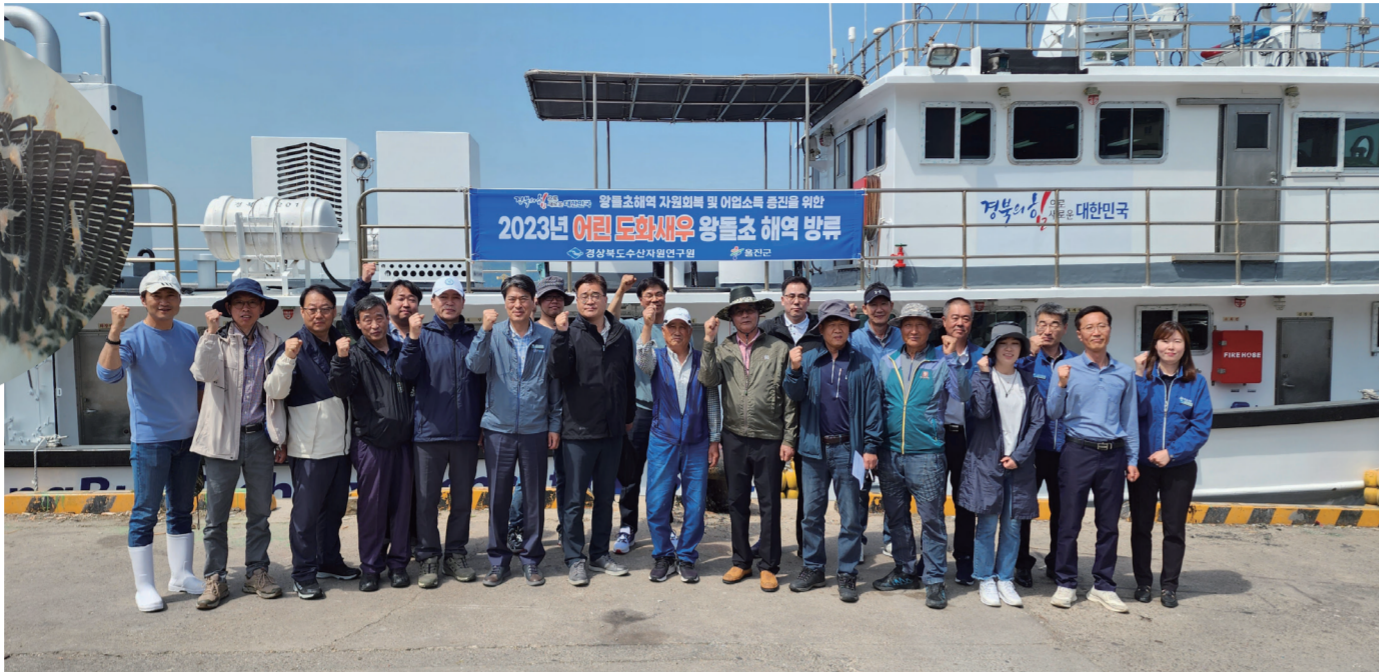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일명 '독도새우'로 널리 알려진 도화새우 20만마리를 울릉·독도해역에 23일 방류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울진 왕돌초해역에서 도화새우 10만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이번에 방류한 도화새우는 지난해 12월 포란된 어미로부터 부화해 약 6개월간 사육한 전장 약 1.5~3cm의 건강한 개체다.

또 자연 적응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선상에서 수심 약 50m 이하의 암초지대에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해 방류했으며, 이후 성장 단계에 따라 서식에 적합한 해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도화새우는 독도새우류(도화새우, 물렁가시붕은새우, 가시배새우) 3종 중 가장 대형종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 감소 등으로 어획량이 적어 kg당 20~30만원의 고가에 거래되는 동해안 명품 새우류다. 채색은 황적색으로 머리 부분에 흰 반점이 있으며, 살이 단단하고 단맛과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간 경북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고부가가치 품종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내 최초로 2013년 물렁가시붕은새우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도화새우 대량 증자생산 연구·개발에 성공해 지금까지 총 182만마리를 울릉도, 독도 및 왕돌초해역에 방류했다.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장은 "해양생태계 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해 고부가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과 R&D 연구개발을 통해 어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우리 민족의 섬 독도에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독도(도화)새우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우리나라 영토의 실효적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다문화가족, 2023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 참가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 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5월 20일 경산 대구대학교 사랑광장에서 열린 '2023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에 청송군 다문화가족 40여명과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퍼레이드, 주제 공연, 한마음 명랑경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청송군은 영양군과 함께 인도 문

화를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인도 향 체험 및 인도 의상 체험 후 즉석에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송군다문화사랑봉사회 최규대 회장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순항 중!

주민 주도형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농촌재생 사업에 기여

예천군이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순항 중이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성장 중심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 주체를 육성해 발굴된 인재를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시켜 주민 주도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전문가 그룹인 중간 지원조직으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을 구축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예천희망아카데미는 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531명의 주민이 교육을 받아 52팀 액션 그룹 선정 후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으며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소액사업 및 보조사업을 지원했다.

신활력플러스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은 총 21개로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10개, 지역 유희자원을 활용한 생산·가공시설 조성 6개, 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5개를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액션그룹을 지속적으로 컨설팅

한 결과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2개소, 협동조합 3개소, 장애인기업 1개소, 금당실 마을호텔 1개소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특히, 5월 중 준공 예정인 예천희망아카데미는 액션그룹과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을 중심으로 농특산물을 활용한 키움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지역상품 유통채널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주민의 역량강화와 육성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육성된 중간 지원조직과 주민 공동체는 주민 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주체"라며 "농촌 재생을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미국계 기업 PMC그룹과 800억 규모 투자 협약 맺어

주낙영 경주시장 "PMC그룹이 그간 경주서 축적된 기술력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미국계 기업인 PMC그룹의 미화 6000만 달러(한화 800억원 상당)상당의 투자유치와 신규 일자리창출 50명 규모를 골자로 한 공장 이전 및 증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2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PMC코리아 이경련 대표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PMC코리아는 안강읍 검단일반산업단지 3만 3010㎡ 부지에 2027년까지 새로운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경주 안강 검단일반산업단에 들어설 PMC코리아의 새 공장에는 성장성이 높은 지방산아마이드 및 PVC 안정제가 주요 생산품목이 될 예정이다. PMC코리아는 경주공장 이전 및 증설이 완성되는 2027년에는 매출액

이 1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MC그룹은 미국 글로벌 화학회사로 그룹 내 총 8개의 사업부문을 둔 세계적인 기업이다.

1990년 경주 황성동에 생산공장을 건립하면서 경주시와 첫 인연을 맺었고, 2014년에는 경주에 PMC코리아(유)를 설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이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팜유 및 유채유를 원료로 하는 '지방산 아미드'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필름과 플라스틱 등 산업소재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 시 꼭 필요한 첨가제인 탓에 전세계 석유화학기업이 주요 고객이다.

PMC코리아(유) 이경련 대표는 "산업계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플라스틱 첨가제 시장에서 완벽한 품질로 경



쟁력을 갖춰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R&D와 생산공정의 역량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미국계 기업인 PMC사가 새롭게 동지를 트는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마인드로 시민과 함께 발전·성장하는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PMC그룹의 투자를 계기로 안강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소재·부품 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경주 북부권에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 등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윤태용/기자

영주시, 4년 만에 재개한 '시민건강체험마당' 성료

34개 기관단체 협조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3일간 1만2000여 시민 참가

영주시보건소가 코로나19로 4년 만에 재개한 시민건강 체험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천 배고개둔치에서 진행된 이번 건강체험마당은 보건의료단체, 병원, 대학 등 34개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1만2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안경사회에서 실시하는 갑상선초음파, 한방진료, 구강진료, 약물 오남용 상담, 빈혈검사, 시력검진 등 체험부스에 시민들로 성황을 이뤘다.

또한 요양·한방병원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비약물치료프로그램 체험, 한방스트레스 검사, 재활치료 및 한방건강 상담 등 전문의에 의한 고품격 진료와 상담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처음 참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들도 더욱 다양한 체험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올해는 3개 어린이집(보현,아트,풍기)아이들의 울동 및 영광중학교 학생들의 드림북, 중고등학교 학생 댄스동아리 시연 등 청소년들의

참여로 건강 체험마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권경희 보건소장은 "가정의달 5월 가족과 건강도 챙기며 코로나19 이후 모처럼 지친 심신에 충전의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백세시대 건강을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안동시 - 안동대학교 - 안동시의회, '천원의 아침밥' MOU 체결

아침식사 결식률 높은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 제공



안동시는 23일 안동대학교 정책회의실에서 안동대학교, 안동시의회와 함께 대학생들의 아침을 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안동대학교가 나머지 금액

을 부담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이 참여해 대학생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통한 쌀 소비 촉진에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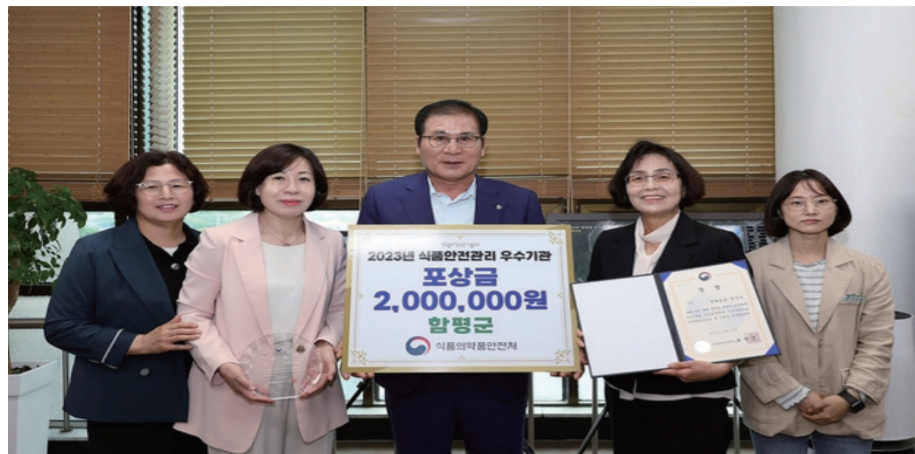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대학교는 학생들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식당을 운영하고 교내 홍보 채널을 활용해 천원의 아침밥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는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통한 관내 농산물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기창 시장은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 건강한 식습관을 배양하며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기대한다"라며 "양질의 아침 밥상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쌀 소비 촉진,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함평군, 2023년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남 함평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3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함평군은 "2023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표창과 함께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위생관리 ▲우수사례 등 13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군은 매월 마트와 재래시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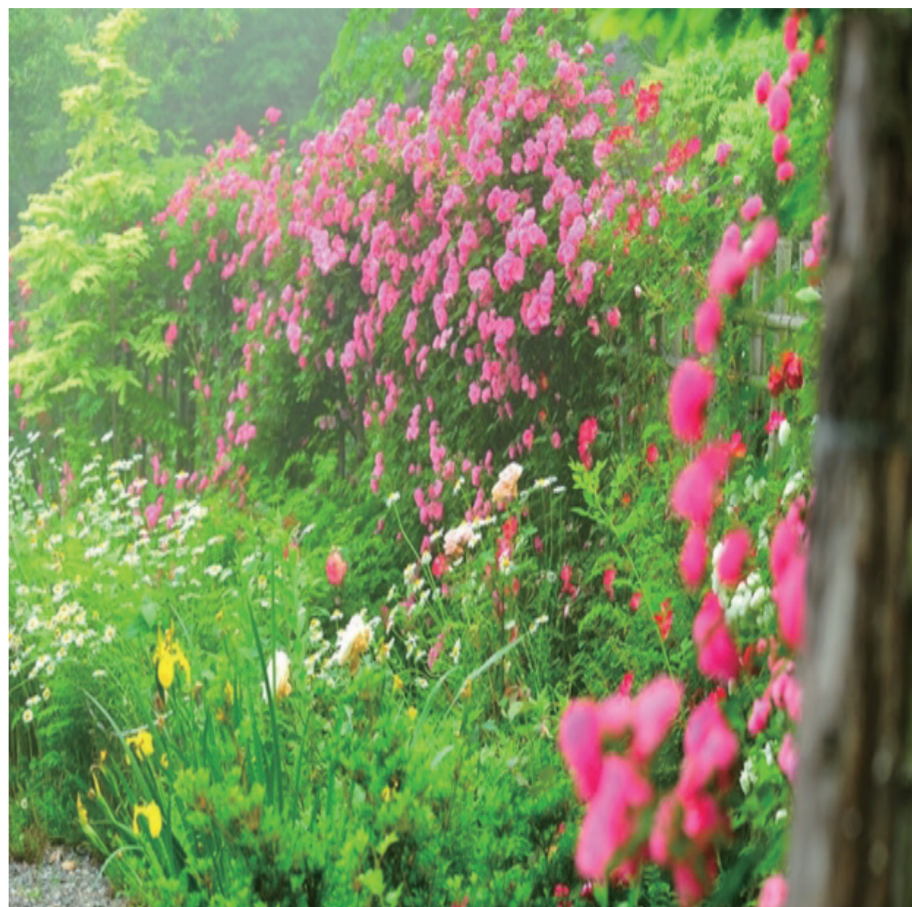
식품을 수거·검사해 위해 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제조 및接客업소 지도·점검에 적극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건강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26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 지도 활동을 펼치며 식품 안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남도, 소담스런 꽃 만발 전남정원수목원서 추억만드세요

죽화경·하늘빛수목정원·솔매음정원 등 체험행사 풍성

전라남도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지역 민간정원과 사립수목원 곳곳에서 꽃 축제와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전남 제2호 민간정원인 담양 죽화경에서는 6월 6일까지 '데이지 장미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 죽화경의 상징인 대나무 기둥에 기댄 덩굴장미가 만개해 데이지 등 다양한 야생화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정원을 찾은 관람객이 소중한 추억을 남기도록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된다. 장흥 하늘빛수목정원은 전남 제8호 민간정원으로 장미터널이 인공사진 명당으로 유명하다. 정원에 100m가량의 장미터널이 양쪽으로 들어서 있어, 만개한 장미꽃 아래서 추억사진을 남기며 초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화순 솔매음정원엔 약 1천여 종의 식물이 있어 작은 식원으로 불린다. 여느 정원에서 보기 힘든 국내 희귀·특산종,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 광릉요강꽃 등 정원이 31년 동안 모아온 보물같은 자원을 볼 수 있다. 또 수국이 가장 아름다운 6월부터 ▲보성 성림정원(윤제림) 6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고흥 장수호 힐링정원 6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등 정원과 수목원이 연일 축제를 열 계획이다. 여름철 전남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수국을 사랑하는 도민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정원과 수목원이 아름다워지는 계절에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방문해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만 보전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노관규 시장,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후속 조치 등 행거



노관규 순천시장은 22일 열린 '2023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서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국가해양정원 사업 등 관련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있지만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기념행사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부대행사를 둘러보며,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이 동행했다. 노관규 시장은 공식 행사에 앞서 한 장관에게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를 소개하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슈퍼블록이라고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역을 설정해 차량을 주변부로 우회

시켜 주거 공간과 대기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도로를 잔디로 바꿔 시민들에게 돌려준 순천이 제시한 이 방법이 탄소중립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아일랜드에 동행한 기자들이 한 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동천 하천 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지방하천인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말로 (승격될 것으로) 본다. 순천시가 염원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기념행사에서 한화진 장관은 "이제는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물 다양성의 회복과 보전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신고 등 8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이승준/기자

완도해경, 수상레저 무상점검 "안전 레저문화 조성"

국민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부터 13시까지 완도 신항만에서 기관고장 및 표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회 5척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활동자가 증가하는 5·10월 2회 총 17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는 서비스 실시 전 약 2주 이상 홍보활동을 펼쳐 총 13척에 대한 무상점검을 마쳤다. 이번 서비스는 수상레저기구 사전예약 및 현장 방문 활동자를 대상으로 민간 수리업체 전문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과 함께 엔진오일, 연료필터, 배터리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소모품 보유자에 한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수리를 진행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활동자에게 출항 전 기구점검 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안전 캠페인도 병행했다. 수상레저기구 활동자 박 씨는 "수

상레저기구 무상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병수/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인문 For:rest'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광주 동구는 오는 6월 10~11일 개최하는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들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등산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무등 인문런 걷기 ▲인문 숲 투어 ▲춘설 사유 정원 ▲인문 스테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막 행사인 '무등 인문런 걷기'는 학운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축제 본무대인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까지 걷는 행사이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등산 중심사 상가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권 쿠폰과 기념품을 지급한다. '인문 숲 투어'는 드로잉 아트레트로 포토무등가는 길·오방방 투어 등 4가지 체험 행사로 진행된다. '춘설 사유 정원'은 싱잉볼(소리나는 그릇·명상도구) 마스터와 함께하는 요가명상, 춘설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힐링 명상에 참여할 수 있다. 무등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중심사에서 진행되는 '인문 스테이'는 풍경소리와 함께하는 중심사 투어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인문 축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문 스테이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각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은 15명 내외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문도시 동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인문 축제는 자연 속에서 쉼(休)을 즐기는 힐링 축제가 될 것"이라며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무등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축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주관하고, 광주 동구가 주관하는 무등산 인문 축제인 '인문 For:rest' '쉼'이 있는 숲속 인문 생활을 테마로 6월 10~11일 양일간 무등산 중심사 지구(문빈정사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병수/기자

신안천일염 체험센터 개관하여 복합문화관광 활성화

문화, 체험, 음식이 결합된 통합관광 개발에 박차

신안군은 지난 22일 비금면 신안천일염 체험센터에 군수를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천일염 체험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신안천일염 체험센터는 총사업비 29억(국비 13, 교부세 5, 군비 11)을 투입, 총면적 664㎡로 1층은 천일염 소금 체험장과 교육장, 2층은 전시장 및 베이커리 카페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2층 카페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및 천일염 커피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천일염 가공제품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

모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 할 예정이다. 신안천일염 체험센터가 위치한 비금면 대동염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 문화유산이며, 특히 비금 수림염전은 1호 염전으로 국내 갯벌염전의 사회문화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갯벌과 천일염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문화관광, 음식관광이 결합된 복합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현대적 시설 갖춘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박차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남진 야시장 '막걸리파티'이벤트 개최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목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자유시장에 마련된 남진야시장은 '막걸리파티'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주 막걸리 시음과 우리지역 출신인 가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했으며 큰 호응을 불렀다. 남진야시장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보완해 지난 3월 재개장 후 방문객과 관광객이 꾸준히 유입되는 등 개장전 대비 월 평균 1,000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통시장의 야간영업을 넘어 추억·문화·창조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 모바일 디지털시장으로 문을 연 청호시장은 4월까지 350여건의 인터넷 주문이 이뤄지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년 이상 오랜 역사로 목포의 전통시장 1번지라 불리는 중앙시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해 쾌적한 시설로 거듭난다. 또한, 동부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전문 인력인 시장매니저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목포·한복의 맛을 간직하며 명맥을 유지하는 신중양시장은 편리한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고 전통한복의 맛을 살려 즐길 수 있는 특화 체험거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자유·청호·종합수산·중앙시료·항동·신중양시장등 전통시장 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전기화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활동을 펼쳤으며, 7개 시장의 아케이드, 전기, CCTV,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 목포센터와 월 1회 협업회의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목포시는 지역 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홍용 목포시장은 "모든 전통시장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육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전북도, 조직진단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기관 혁신 속도

16개 공사·출연기관 혁신 및 경영합리화 위한 조직진단 중간 점검

전북도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조직진단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조직, 인사, 재정 등 기관별 현황 분석, 기관 및 도청 지도감독부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기관별 주요 이슈 중심의 점검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보고된 기관별 조직 및 기능 분석내용을 토대로 각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날 논의된 사항과 건의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용역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 한중관 선임 이사장 취임 이후 기관에서 작성한 경영혁신 기본계획(마스터플랜)도 공유했다. 재단은 ▲ 미래형 혁신 디지털 금융 체제 구축, ▲ 코로나19 상권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ESG 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합리적 임금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 4개 전략목표와 8개 전략과제, 4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신용보증재단 사례처럼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출연기관장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하며, "출연기관이 단순 사업집행이 아닌 분야별로 관련산업을 어떻게 키워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직진단 용역은 올해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 조직, 인사, 재정 등 기관별 조직진단, ▲ 유사기능 조정 및 합리적 보수체

계 검토, ▲ 기관별 경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혁신방안 마련, ▲ 전 기관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통합매뉴얼 제작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인사, 기능조정, 재정 등 경영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적용해 과감한 혁신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남출/기자

장흥군,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사업비 지원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장흥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61동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314동, 지붕개량 5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창고·축사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이 자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구례-곡성 농·축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구례와 곡성 농·축협은 지난 18일 구례군과 곡성군의 두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열고 곡성군과 구례군이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식은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두 지역의 상생 협력을 기원하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의 3개 농·축협과 곡성군의 5개 농·축협 소속 임직원들의 뜻이 모여 성사됐다.

구례에서는 구례농협, 산동농협, 구례축협 임직원들이 곡성에 기부하고, 곡성에서는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 입면농협, 곡성축협 임직

원들이 구례에 기부했다.

김순호 군수는 "조합장을 비롯한 농·축협 임직원께서 고향사랑 상호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의 담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축협 은행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성현/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 점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시설 어린이집의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고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도내 집단급식소 설치 어린이집 3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영유아시설에 대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지난 5년 평균 대비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된 식중독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노로바이러스에 소량 오염된 식품으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전염력이 강해 집단으로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말까지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50개소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며, 나머지 145개소는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조리식품, 식재료, 조리기구 등으로 식중독균 12종 및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도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공직생활의 첫걸음! 그 시작을 응원합니다.

2023년 새내기 공무원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운영

남원시는 2023년에 발령받은 44명의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조직화합을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3 시장님과 함께하는 신규직원 간담회'를 5월19일 남원시바이오산업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팟캐스트 '책임아우'의 진행자이기도 한 '오은 시인'의 민원 응대에 힘들어하는 신규 공직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와 시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남원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장님과 대화로 이뤄졌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최시장은 남원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현안 업무 등 시정 전반과 인생 선배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신규 공무원들은 직장생활의 소감과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서로 소통,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경식 시장은 "여러분이 남원의 미래입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신규 공직자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지

원을 약속드립니다."면서, "자신이 맡은 분야는 본인이 최고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충실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구제역 유입 차단 총력... 소·돼지·염소 농가 백신접종

16~20일 5일간 총 1657농가, 19만8000여두 접종 완료

전라남도 나주시가 충북지역 축산농가에서 촉발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농가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국내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은 4년 4개월 만이다. 22일 나주시 축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 2곳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총 11건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한우농가는 충북 청주 8곳, 중평 2곳이며 염소농가는 청주 1곳이다.

나주시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관내 소, 돼지, 염소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명령했다.

이 기간 소 1526농가·6만8505두, 돼지 85농가·12만4125두, 염소 48농가·4438두 등 총 1657농가, 가축 19만7068두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졌다.

관련 지침에 따라 생후 2개월 미만 가축,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주시는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 11명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했다.

돼지 및 전업규모 농가는 규모와 상관없이 자가 접종을 도려했으며 농가별 접종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김영만/기자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기 역량강화 교육 실시



화순군은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기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 1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대학교 양동욱 교수의 모두가 평등한 화순을 위한 첫걸음 -성인지 감수성 점검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발휘하는 여성리더십, 화순군 홍보물을 통한 성인지적관점의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동성과보고회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

으로 군민참여단 2기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제언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활동역량을 강화해, 지역을 변화시키고 리더하는 화순군의 정책파트너로서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여성이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2기가 활동하고 있다.

윤경호/기자

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방안 추진

경기도, 화물차 밤샘 주차허용 조례제정 독려, 차고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소개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시 화물차 차고지 담당자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1면당 약 1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 등으로 부지선정이 어렵다. 도는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차고지 조성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는 이날 시·군에 밤샘 주차 허용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법령 검토, 불법 화물차 단속 전담인력 충원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영차고지 조성시 화물차 주차면을 확보할 경우 일반주민들의 승용차 주차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조례제정(2016년)을 하게 된 배경 및 추진 경과 등을 소개했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도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

는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시·군이 밤샘 주차 허용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고창군, 개화 및 수확기 앞둔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고창군이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경작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잔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또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띠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 확인 시 1주(珠)라도 예의 없이 입건되는 등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고창군보건소는 지역 전광판을 통해 2023년 양귀비, 대마(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단속

계시 홍보와 14개 읍·면 이장단 회의자료 배포 등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고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부산시, 불법자동차·이륜차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부산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합동으로 추진,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부산시는 오늘(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령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 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홍보용 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누리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부산시,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 공개 및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지도·점검 실시

시, 9월까지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 대상 전문 회계사 동반 현장 지도·점검

부산시는 2022년 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부원/원전) 상태에 빠진 법인은 22곳,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은 20곳,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불허와 담보제공 한도 축소 등 개선된 제도 덕분에 평균 부채비율은 감소했으나, 적자운영 법인이 9곳(2021년도 25개 기관→2022년도 34개 기관)이나 증가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동일한 수(22곳)를 유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

인에서 2021년 대비 적자운영 법인 8곳,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 2곳이 증가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소폭 줄어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 시내의 요양병상은 1만 2천 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요양병상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시는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전문 회계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또한,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도·점검과 병행하고, 이들 법인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해 의료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라며,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의료법인은 단호히 조치하는 등 의료법인 운영 투명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내 의료법인 총 104곳으로, 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제보에 따른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점검법인 중 10곳에 대해 시정 또는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2, 행정지도 7, 고발 6)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송종진/기자

전북도 특사경, 6월 2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 단속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주방, 전자담배 판매업소,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2주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전북대, 객사, 신시가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

획이다. 또 전라북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

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철/기자

강진소방서, 주요 관광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강진소방서는 하계 휴가철을 대비하여 강진군 관내 주요 관광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정을 달을 맞아 주말과 연휴에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각 지역 관광 명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지역축제, 행사장 합동점검 실시, 관계자 화

재안전,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관서장 현장지도 및 안전관리 당부, 실내 관광시설 관계자 안전교육, 연휴기간 관광 관련시설 현장 지도점검 등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강진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인들의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추윤호/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답례품 구입



지역 특산품 생산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강릉 ITS, 2026 세계총회 홍보 총력

22일~24일 ITS 유럽총회 참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집중

강릉시는 2026년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전 세계 관련 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고, 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국제 무대로 나섰다.

김홍규 시장을 비롯하여 ITS 세계총회 담당자 및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2023 ITS 유럽총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유럽총회는 약 57개국 3,000여 명의 ITS 전문 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래 교통 관리 및 운송,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기술 시연, 학술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 ITS협회와 함께 유럽총회를 주최하는 ERTICO,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이번 유럽총회를 개최한 리스본시, 오는 2024년 ITS 세계총회 개최를 준비 중인 두바이 관계자들과 연달아 면담을 진행했다.

주요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도시 전역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도시형 ITS 모델'을 제시하며 2026년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호 선진기술 및 정보 공유 등을 통



한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ERTICO, 유럽연합(EU)과의 면담과 함께 한국 ITS협회와 ERTICO 간의 신규 MOU가 추진되며, 향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 세계총회의 국제적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유럽총회 행사장 내 한국관 운영에 참여해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빌리티 선도도시임을 널리 알려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국관 운영으로 세계총회 홍보와 더불어 로드쇼와 연계해 한국 ITS의 비전과 최신 기술 동향을 제시하고 국내 ITS 기업의 기술 홍보와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홍규 시장은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회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강릉 ITS 성공이 곧 대한민국 ITS의 척도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천안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본격 추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기준 완화!

천안시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나선다.

시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의 통해 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지정 기준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시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음·면·동은 물론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홍보해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동해시, 연이은 집중현장점검 지진대응 '총력'

도재비골 스카이벨리 현장 점검 & 캠페인 펼쳐

동해시가 최근 지진에 따른 관광객의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이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재비골 스카이벨리를 3중 시설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시는 관광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개장 전 일상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으며,

내달 7일까지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이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관광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추암초대바위 출렁다리 현장점검에 이어, 19일에는 김구하 부시장을 비롯하여 담당부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목호권역 대표관광지인 도재비골 스카이벨리의 구조물, 사면부 등 시설물 각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스카이벨리 및 해랑전망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나눠주는 '자율점검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동해 해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

생함에 따라 관내 주요 해안지역인 목호·발한지구의 주민대표 안내체계, 경보시설 작동유무 등의 사전 대비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시는 내달 16일까지 관내 점검대상시설 13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시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안전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재비골 스카이벨리는 재해 위험지역이었던 도재비골 급경사지를 시에서 정비하여 폐하였던 곳을 젊은 감각과 액티비티 스킬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지난 2021년 6월 개장 이후 유료 관광객 70만명이 다녀가는 등 인근 눈골담길과 덕장마을, 목호항 및 어달항과 어우러져 목호권역 대표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다.

김구하 부시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안전점검 캠페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국민의힘-대전시 당정협의회, 국비 확보 총력

대전시는 22일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당협위원장, 자치구청장, 시의원들과 민선 8기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시정 성과 및 내년도 국비사업 등 주요 시정에 대한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에서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이하 실국본부장과 정재필 경제수석보좌관, 박철환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는 이은권 위원장과 윤창현(동구 / 비례대표 국회의원) · 조수연(서구갑) · 양홍규(서구을) · 정상철(유성구을) 당협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구청장,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운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전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전을 반드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는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전 유치 당위성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협의 완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KDI 수요예측제조사 조기 완료 ▲머크 및 SK온 투자유치 협약 체결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 선정 등 최근 거둔 성과를 설명하고, 대전시당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인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대전형 스마트 농업 첨단산업 벨리 조성 ▲카이트 창업 혁신파크 조성 ▲글로벌 대학 육성 ▲천문·우주 체험시설 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

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정홍보 안건인 ▲2023 대전 0시 축제 8월 개최 ▲대전 공나무 사랑카드 다자녀 기준 2명으로 확대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시장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선제적인 도약을 위해 당-정의 소통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하며, "시민에게 시정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로 다각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현안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속도감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은권 시장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국가산단 유치, 우주클러스터 지정 등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 공직자들의 노력과 돌파력이 대단하다"며, "대전시당도 대전시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예산확보를 위해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강원 ICT융합 신기술개발기업 지원사업' 2개 과제 선정

원주시는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주관 공모사업 '2023년 강원 ICT융합 신기술개발기업 지원사업'에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에, 시는 도비 포함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입, 지역 내 ICT/SW 관련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가 주관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2023년 강원 ICT융합 신기술개발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ICT융합 분야 신기술기반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과 개발제품 고도화, 마케팅, 컨설팅, 인증지원, 특허출원 등 기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테크노파크 사업 공고를 통해 도내 사업장을 둔 ICT/SW기업을 대상으로 총 25개사(원주 15, 춘천 9, 강릉 1)가 신청했으며, 최종 2개 과제 선정에서 원주시 소재 기업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주식회사 메추리의 '멀티채널 웨어러블 심전계 시제품 제작 및 CB scheme 인증'과 천우시스템의 '고효율 저비용의 저광도A 항공장애표시등의 개발'이다.

주식회사 메추리는 2018년 설립한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다수의 석박사급 인력으로 우수한 R&D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1년 출시한 HiCard는 웨어

러블 심전계 국내 최초로 요양급여를 인정받았다.

천우시스템은 2018년 설립한 항공장애등 및 등명기 제작회사로 차별화된 반사판 구조의 항공장애등을 개발했다. 공인인증 통과 및 특허 등록을 완료한 해당 제품을 기반으로 2020년 3억6500만원, 2021년 7억4300만원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민병인 첨단산업과장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ICT-SW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이원 예채 아파트 진입도로 주변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완료

이상호 태백시장, "대상지 발굴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 시민 주차 편의 제공"최선

태백시는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대학길 이원 예채 아파트 진입도로 주변에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이 조성됐다.

태백시는 지난 4월부터 태백시 황지동 399-4번지 일대 660㎡(200평)부지에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해 차량 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은 태백시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도심 주차난 문제는 부지확보와 예산상 한계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염태영 경제부지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점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2일 여름철 자연 재해를 대비해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 416만㎡(126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올초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어 최근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염 부지사는 현장사무실에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별목과 토공 작업이 한창인 산업단지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염 부지사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여파로 반도체 업황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며 “공사 현장은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조치해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염 부지사는 용인 처인구 남사·이동읍에 약 700㎡(251만평) 규모로 계획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도 방문했다.

이곳은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42년까지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 5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자리에서 염 부지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의 반도체 팹이 적기에 완성되고 정상 운영되어 국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에서 용인, 평택 등 7곳이 참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 18일 추진전략 발표회를 개최했고,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북도, 인구 2억3천만명 인도 UP주와 상호교류 협약

이철우 지사, UP주 청사에서 요기 주지사와 환담

경북의 새로운 동반자로



경북도는 22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UP주는 인구 2억3천만명으로 인도의 28개 주 가운데 인구 1위인 지

점이 있어 경북과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교류 협약은 경북도와 UP주가 △우수 대학생들의 경북 내 대학으로 유학지원 △우수 인력들의 경북 내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UP주 최대의 산업지역인 노이다(Noida)시에서 경북기업 및 물품을 홍보하는 2년 주기의 △경북페어(GB-Fair) 개최도 협약에 담았다.

한편 델리와 인접한 UP주의 노이다시는 인도 정부가 계획적인 도시화와 산업지구 개발을 위해 생겨난 도시로 삼성, LG전자 공장이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의 하나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UP주와의 협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경북이 진출하고, 인도의 우수한 학생과 인적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함양군 농식품 시카고 상륙 큰 인기

미국 중·동부시장 개척에 나선 함양군 미국 시장개척단이 시카고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진병영 함양군수를 단장으로 군 관계자, 관내 수출업체 등이 참여한 함양군 미국 시장개척단은 20일(현지시각 19일 오전 10시) 시카고에 도착해 농산물 홍보판촉전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시장개척단은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프레쉬인터내셔널 마켓 등 2개 매장에서 함양군 농산물 홍보판촉전을 진행했으며, 진병영 군수 등 시장개척단도 현지 마켓 판촉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판촉전에는 ‘케이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떡볶이를 비롯해 연잎밥, 인삼죽, 냉면 등 함양군 대표 통식품 30여종이 선보여 마켓을 찾은 교민들은 물론 현지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시장개척단은 시카고 현지 방송은 물론 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현지 매체를 통해 함양 농식품을 소개하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향후 수출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촉전을 방문한 현지인과 교민은 “연잎가공식품, 떡볶이, 인삼죽 등을 시식하고 제품의 특징을 묻는 등 함양 농식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함양군은 현지 유통업체와 삼계탕, 연잎가공식품, 다류, 떡볶이 등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부 현지 바이어들에게 함양 농식품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아울러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온라인 수출상담과 전화 등을 통해서 수출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군의 우수한 농식품을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렇게 큰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라며 “앞으로도 지리산 함양의 우수한 건강 먹거리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삼성전자, 프리미엄 TV 앞세워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32.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사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가 발표한 1분기 글로벌 TV 시장 데이터에서 삼성전자는 Neo QLED·OLED·라이프스타일 TV 등 프리미엄·초대형 제품들을 앞세워 금액 기준 32.1%의 점유율을 기록, 경쟁사와 격차를 크게 유지하며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글로벌로 성장이 점차 확대되는 75형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삼성은 38.8%의 금액 점유율을 기록했

다. 프리미엄 TV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도 각각 52.6%와 6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초대형 TV = 삼성”이라는 공식을 이어 나갔다.

80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는 98형 신제품을 앞세워 4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49.2% 보다 약 10% 포인트 증가한 59.1%의 금액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이는 주도하고 있는 QLED 시장의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13% 증가한 373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TV 시장의 8.0%를 점유했다. 이 중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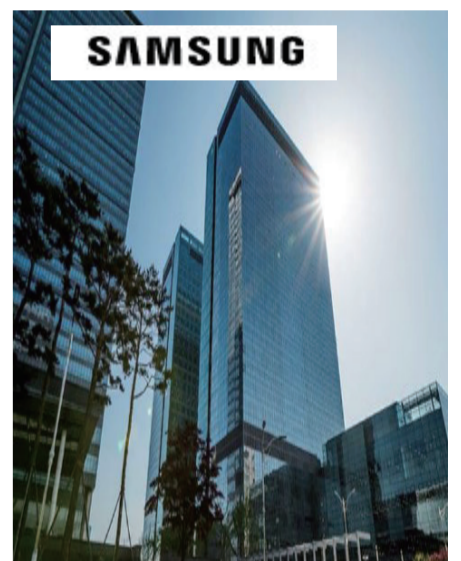
전자는 215만대의 QLED를 판매하며 전체 QLED 시장의 57.5%를 차지했다.

삼성 QLED는 2017년 첫 출시 후 올해 1분기까지 누적 판매 약 3,800만대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1분기 TV 시장은 경기침체와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2.5% 감소한 224억8천5백만달러, 수량 기준으로는 5.2% 감소한 4천6백5십2만대를 기록했다.

최만식/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자율주행 기술, 국제표준으로 세계시장 진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 36명과 함께 ‘제61차 지능형교통시스템(ISO/TC 204) 국제표준화회의’(5.15~19. 미국/온라인병행)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26건의 자율주행 국제표준 프로젝트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2020년 12월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안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표준은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과하여 국제표준 발간 직전 절차인 국제표준안 단계로 진입했다.

이 표준안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수로 적용되는 핵심 표준으로서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 및 부품의 설계·개발·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으로 열리는 레벨3 시장에서 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회의장 현지에서 국표원은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와의 양자 실무 회의를 개최, ‘한-미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협력주행레벨·사이버보안·AI 등 자율주행 핵심표준의 양국 간 조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차 표준화 로드맵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시 양국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중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 자동차 분야의 표준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우리자율주행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과의 표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제62회 The 62n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023. 5. 12(목) ▶ 5. 15(일) (4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전라남도체육회
【주관】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후원】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완도군

제31회 The 31st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5. 24(수) ▶ 5. 26(금) 3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 | JNSAO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신한올제1건설소, '우리가 바로 퀴즈왕!' 열어

- 신한올제1건설소, 가정의 달 맞이 어린이 골든벨 퀴즈 대회 시행
- 맹승원 신한올제1건설소장, "향후, 다양한 교류로 학생에게 도움되게" 노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본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1일, 울진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 골든벨 퀴즈 대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울진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일반상식, 안전상식 등 다양한 퀴즈를 특별 토의를 통해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우승팀에 대한 시상식과 더불어 열심히 참가해준 모든 학생에게 손선공기와 간식을 주며 아이들과 신한올제1건설소 직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임순남 센터장은 "신한올제1건설소가 매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좋은 추억을 남겨주어

너무도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한울본부의 진심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에 맹승원 신한올제1건설소장은 "아동센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번에 이 행사가 한층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



으로도 보다 더 다양한 교류를 하며 조금이나마 울진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올제1건설소와 울진지역 아동센터의 교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11년이나

이어져 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아이들의 미래 꿈나무로 우뚝 솟아날 수 있도록 관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기도교육청, 3개국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국·태국 고교, 파주 한빛고와 상호 방문 국제교류

영국, 태국 고등학생과 교사 19일~28일 한빛고 찾아 수업과 문화 교류

경기도교육청이 국제사회의 문화 이해와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국제교류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육 교류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참전국 미래세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보훈처 연계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13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빛고는 지난해 9월부터 '내일을 위한 배움(Learning Lessons for Tomorrow)'이라는 주제로 영국, 태국 고등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영국 Stroud High School, 태국 Mahasarakham University Demonstration School 학생 60명과 교사 10명은 19일부터 28일까지 파주 한빛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영국·태국 학생들은 열흘 동안 한빛고 학생들과 ▲학생주도 수업 교류 ▲교육봉사 ▲문화 체험 ▲홈스테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

학생들은 학생주도 수업 교류에서 2개월 동안 온라인 사전 모임에서 정한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의사소통역량을 키운다.

또, 영국·태국, 한빛고 학생 3명이 총 30팀을 구성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 전쟁 참전의 인연으로 시작된 3국의 우정,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미래 교육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복궁, 임진각, DMZ, 설마리 전적지 탐방과 홈스테이를 하며 상호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보낼 계획이다.

이번 교류에 참여한 영국의 Mae Hedges 학생은 "한국, 태국 친구들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영국, 태국 간의 역사적 연결과 문화에 대해 배우고, 미래의 평화와 지구 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언어와 문화 배경이 다른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문화 다



양성을 이해하고, 공감과 포용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국제교류 동아리 ▲온라인 수업 교류 ▲상호방문 국제교류 등 학생·학교·교육과정 중심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키우는데 노력해왔다.

조혜영/기자

경북교육청, 제5기 시설공사 명예감사관 위촉!

시설공사 일상감사에 외부전문가 참여, 예방감사 효과 극대화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공사 예방감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분야 외부전문가 12명을 '제5기 시설공사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시설공사 명예감사관은 교수 4명, 건축사·기술사 7명, 특급기술자 1명으로 구성했으며,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기간 내 2회(공정률이 50%, 85% 도달 시)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감사담당자 자격으로 참여한다.

오는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제5기 시설공사 명예감사관은 2년의 임기 동안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문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정보통신, 소방) 일상감사를 통해 예방감사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교육시설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시설



공사 명예감사관은 분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비롯해 73건의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1,005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은 마련하는 등 경북교육청을 대표하는 주민감사관 제도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부 전문가의

풍부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일상감사를 통해 교육시설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내 초등학교 90학급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90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서부교육지원청의 중점사업인 '디지털 역량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미래 교육'의 하나다.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정보 이해와 활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 등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스마트 기기 등 교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토론·체험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나는야 슬기로운 디지털 어린이',



'나를 찾아 떠나는 디지털 여행', '나도 디지털 음악 작곡가' 등을 주제로 한 기초 수준의 윤리적 소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올 하반기에는 교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심화 연수 과정도 운영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http://chunhyang.org

빛을그리다

2023.5.25^목 ~ 5.29^월

제93회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지원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위한 충북도, 영동군, 국악방송 업무협약 체결

3개 기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유치 기대 상승



충청북도는 22일 영동군, 국악방송과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와 정영철 영동군수, 국악방송 백현주 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문화예술 대중화 전문 방송기관으로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으며 협약내용은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및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지원 사항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상생협력 사항 △기타 국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에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우륵, 난계 박연 선생 두 분이 계신다. 그만큼 충북은 국악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며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우리나라 국악의 대중화 실현과 국악문화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록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지난 2월 24일 기재부 자체 심사 대상에 선정되어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정책성 등급 심사 중이며 7월 중 국제승인 여부(등급 포함)가 결정된다.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최초의 엑스포로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라는 주제로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1개 전시관 7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 97만명 정도가 엑스포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되며 1,289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국제승인을 받으면 '24년 1월 조직위 출범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대구시, 청소년을 위한 Youth토피아, '제11회 청소년문화축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모두 어울리는 대축제!

대구광역시시는 5월 20일 오전 11시 2.28기념중앙공원 청소년광장에서 '제11회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했으며, 1부 행사로 '제35회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청소년문화축제는 청소년 달을 기념하여 시와 구·군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들이 연합해 기획·운영하는 청소년 축제로 1부 행사는 ▷제35회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시상식 ▷청소년 대표 4명의 청소년현장 낭독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누릴 수 있는 'Youth토피아'의 문을 여는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청소년문화축제에서는 학교 및 각 지역을 대표하는 20개 청소년 동아리의 열정 가득한 공연이 펼쳐졌고, '키링·그림톡·마크라메 등 만들기', '심리검사·상담·드론 조종' 등 22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축제 당일 시상식에서 청소년대상을 수상한 모범 청소년은 총 7명으

로 ▷구·군청, 학교, 청소년 단체·시설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된 박형준(남, 대구세명학교 전공과정 2학년)군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소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과학(정보화)·체육 분야의 각종 대회에서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성취를 이루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이 외에도 학우들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리더십이 있어 고3 시절 전교학생회장을 맡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교내외 표창장 및 상장을 다수 수여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귀감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어 제35회 청소년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박 군은 대구세명학교 전공과에 진학하여 진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구와 부산의 오케스트라에 소속돼 바이올

린 연주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재능을 가꾸어가고 있다. 부문별 우수상 수상자는 3명으로 ▶선행효행부문 고나연(여, 원화여자고등학교 2학년)양, ▶창의인재부문 배소율(여, 칠곡중학교 1학년)양, ▶푸른성장부문 이현진(여,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양이 선정됐다. 장려상 수상자 3명은 ▶선행효행부문 도현성(남, 대구관광고등학교 2학년)군, ▶창의인재부문 홍섭결(여, 동도중학교 2학년)양, ▶푸른성장부문 김주윤(여, 영남대학교 3학년)양이 선정됐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청소년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청소년대상 수상자들에게 "대구 미래50년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Together Day Festival 시흥시 어울림 축제'로 시민 모두 하나 돼



시흥시가 지난 21일 정왕동 미관광장에서 'Together Day Festival 시흥시 어울림 축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제16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구촌 세계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세계인 모두 함께 즐기는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행사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한 세계 의상 퍼레이드, 시흥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외국인정착 유공자 표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베트남·태국·필리핀 대사가 행사를 축하하는 영상과 더불어, 나라별 공동체의 장기자랑, 동아리 공

연과 시립전통예술단의 사물놀이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흥을 돋웠다. 이날 시흥시 내·외국인 주민 모두가 화합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이 한바탕 펼쳐졌다.

공연 이외에도, 30여 개의 문화체험부스 및 음식부스가 운영돼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아시아 전통음식을 맛보고 의상·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나눔누리 문화공동체가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무김치 담그기 체험을 진행해 내·외국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흥시지구 봉사단을 비롯해, 시흥경찰서 자율방범단 연합총대, 정왕2,3동, 정죽, 외국인지대, 외국인주민자원봉사단체, 개인자원봉사자 등이 합심해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내·외국인을 떠나 모두가 하나 돼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바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과 외국인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어울림 한마당이 됐으면 한다"면서, 나라별 언어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신우용/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갛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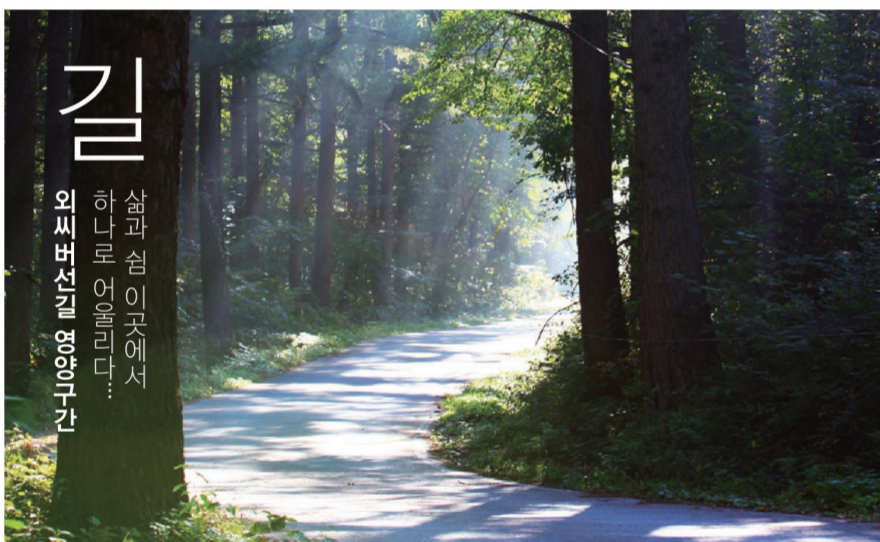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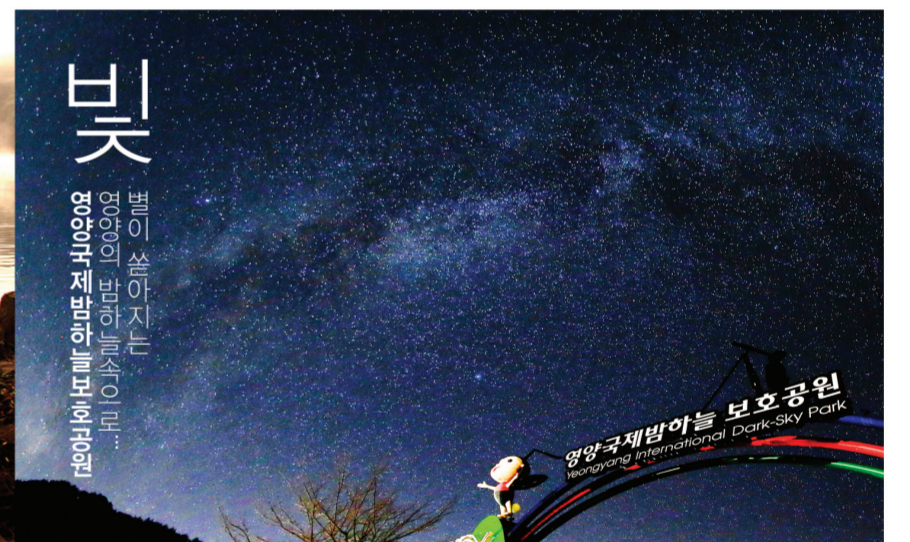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영양에서 영예롭고...



물

영양의 맑고
순수한 물이
영양에서 영예롭고...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이
영양에서 영예롭고...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에서 영예롭고...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 영조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_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